

전력보강...메달·순위 경쟁 자신

전남체육회, 내일 전국체전 결단식

학교팀 약진·전략종목 운영 '효과'

기록·단체·투기종목 선전이 관건

전남체육회가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앞두고 전력보강을 통해 메달경쟁과 목표 순위를 달성할 자신하고 있다.

전남은 46개 종목에 1,644명(선수 1,207명, 임원 447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지난해 13위를 차지했던 전남은 올해 1계단 상승한 종합 12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전남은 순위 경쟁을 위해 전남체고를 비롯한 학교체육팀 약진과 종목별 우수

선수 지원 확대, 전략종목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을 보강하며 대회를 준비해왔다.

특히 박철수 상임부회장과 정건배 사무처장은 추석 연휴 기간 선수단의 훈련현장을 직접 찾아가 격려했다. 34년간 폭포대에서 카누 감독을 역임하며 선수단 사기가 성격적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박 상임부회장과 정 사무처장의 의견 때문이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전남체육회는 집행부 임원들의 관심도 제고, 사무처 직원들의 종목별 책임제를 통한 타 시·도 경기력 정보 및 애로점 파악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강원, 광주, 대전 등과의 순위 경쟁에서 한 발 앞서나가겠다는 심산이다.

전남은 전략종목 운영 등 전력보강에 따른 득점 상승이 전망된다. 지난해 3만738점을 기록했던 전남은 올해 3만1,831점을 예상하고 있다.

변수발생이 큰 승마, 볼링, 사격, 양궁 등 일부 기록 종목과 축구, 야구소프트볼, 럭비, 세팍타크로, 펜싱, 스쿼시 등 득점 폭이 큰 단체종목, 씨름과 태권도, 레슬링 등 투기종목 선전이 3만2,500점대 이상의 득점을 획득해 종합

순위 11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전력을 예측했다.

전남은 2018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볼링 최복음·김현미, 사격 김준홍·곽용빈, 다이빙 김나미, 양궁 이은경, 역도 문유라 등의 선수들이 출전, 개인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수영의 김보경(전남체육회)은 표면 200m에서 한국 신기록 수립을 도전한다. 순천시청 남자 정구팀은 개인전 4연패에, 순천전자고 여자 세팍타크로는 2연패에, 역도의 신비·신록 형제는 다관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전남체육회는 오는 4일 전남체육회관에서 결단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한다. /황애란 기자

선동열 감독 드디어 입 연다

내일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논란 기자회견

선동열 한국 야구 대표팀 전임 감독이 대표 선발 논란에 직접 입을 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선 감독이 4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2일 전했다.

선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병역 미필 선수 발탁 논란에 침묵해왔다.

그러나 청탁을 받고 군 미필 선수를 대표로 선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자 선 감독은 대표 선발 내용을 직접 설명해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을 운영한 KBO 사무국과 의견 조율 실패로 해명 시기를 놓친 바람에 논란을 스스로 키운 꼴이 됐지만, 선 감독은 늦게나마 기자회견을 열어 선수 선발 과정에서 절대 부당한 일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때 '국보급 선수'로 불린 선 감독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 사령탑을 거쳐 지난해 사상 최초로 프로 선수들이 주축이 된 대표팀을 지휘하는 전임 감독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다.

작년 11월 만 24세 이하 또는 프로 3년 차 이하의 한국, 일본, 대만 프로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루는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APBC)에서 대표팀 감독



대비를 치렀고 두 번째 대회인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아시안 게임에서 저조한 경기력으로 실업 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대만과 일본에 연달아 고전한 바람에 야구팬들의 비판을 자초했고, 비난은 오지환(LG 트윈스) 등 일부 선수의 병역 논란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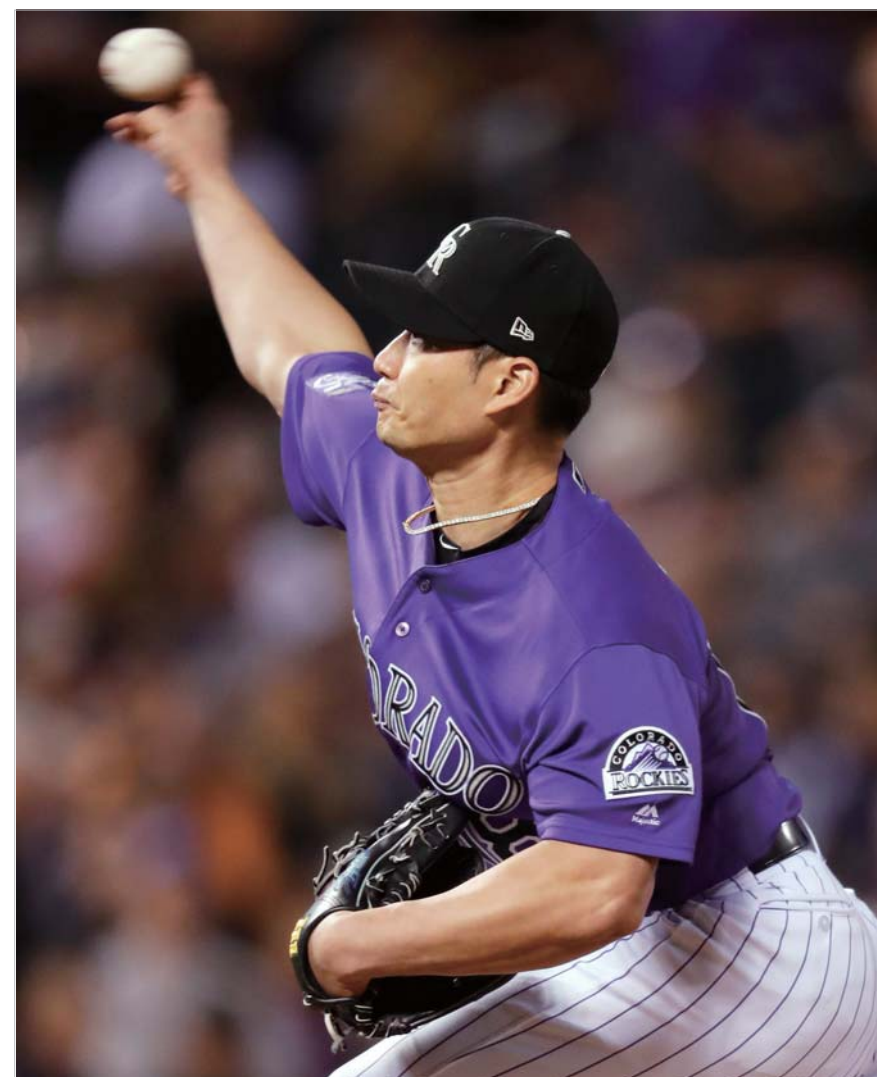
선 감독은 지난 6월 오지환, 박해민(삼성) 등 논란의 병역 미필 선수의 대표 선발을 두고 "두 선수는 결과적으로 백업 선수를 포함한 것"이라며 "박해민은 대수비, 대주자로 활용할 수 있고, 오지환은 김하성(넥센 히어로즈)의 백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한 시민단체가 선 감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논란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이 단체는 선 감독이 구단의 청탁을 받아 일부 선수를 선발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선 감독은 의혹을 해소하고자 언론에 공개 해명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연합뉴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오승환(콜로라도 로키스)이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경기 8회에 마운드에 올라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오승환 "MLB 가을의 전설 쓴다"

LA다저스·콜로라도 첫 월드시리즈 우승 도전

24일 월드시리즈 시작...7차전시 내달 1일 종료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상을 가리는 무대에 한국인 선수로는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과 오승환(36·콜로라도 로키스)이 합류해 '가을의 전설'을 써내려간다.

2일(한국시간)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타이 브레이크에서 밀워키 브루어스가 시카고 컵스를 3-1,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타이 브레이크에서는 다저스가 콜로라도를 5-2로 각각 격파했다.

이로써 다저스와 밀워키는 지구 1위로 디비전시리즈에 직행했다.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은 와일드카드(단판대결)~디비전시리즈(5전3승제)~챔피언십시리즈(7전4승제)~월드시리즈(7전4승제) 순으로 진행된다.

포스트시즌의 시작은 3일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와 컵스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NLWC) 경기다. 콜로라도와 컵스는 올해 6경기에서 3승 3패로 팽팽하게 맞섰다. 득점과 실점이 33점으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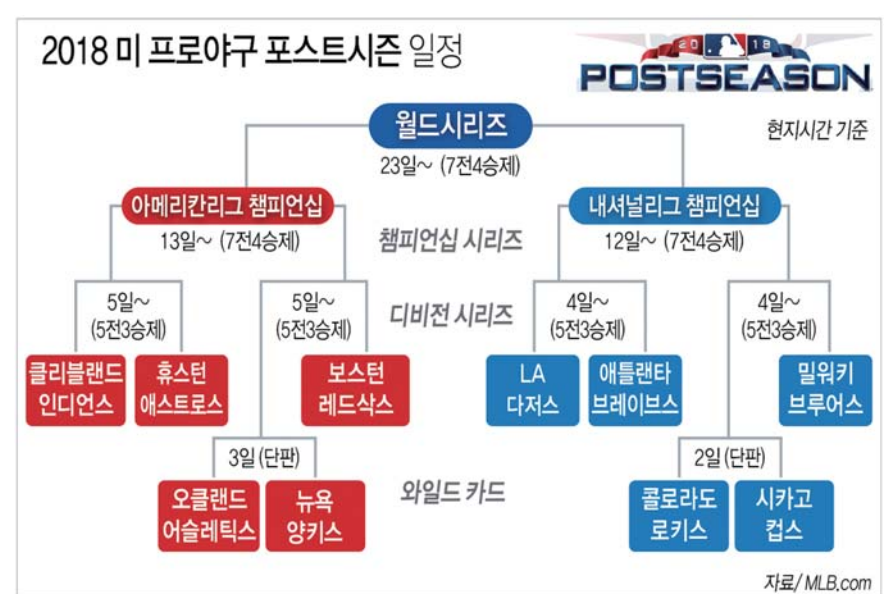
콜로라도는 에이스 카일 프렌드(17승 7패 평균자책점 2.85), 컵스 역시 왼손 에이스 존 레스터(18승 6패 평균자책점 3.32)가 출격한다. 콜로라도

블펜 투수 오승환은 2016년 빅리그 진출 이후 첫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있다. 역대 최초로 한·미·일 3대 프로리그에서 모두 포스트시즌을 경험한 선수로 이름을 올린 오승환은 컵스전에 12경기 등판해 1승 2세이브 평균자책점 5.52를 기록 중이다.

콜로라도는 와일드카드 경험에 풍부한 팀이다. 1993년 창단 후 올해까지 모두 5차례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모두 와일드카드를 통한 것이었다. 2007년에는 와일드카드와 디비전시리즈, 챔피언십시리즈까지 통과해 처음으로 월드시리즈까지 올랐던 경험이 있다. 컵스의 와일드카드 경기는 올해가 3번째다.

4일에는 오를랜드 애슬레틱스와 뉴욕 양키스의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ALWC) 경기가 펼쳐진다.

5일부터는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6일부터는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가 열린다.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다저스, 와일드카드 승리 팀 레이크스-다저스, 와일드카드 승리 팀 밀워키 브루어스로 대진이 짜였다.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휴스턴 애스트로스, 와일드



드카드 승리 팀-보스턴 순이다. 다저스는 2013년 디비전시리즈 이후 5년 만에 애틀랜타와 가을야구에서 다시 만난다. 천신만고 끝에 6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한 다저스는 올해 30년 만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다저스는 휴스턴과 월드시리즈에서 시리즈 전적 3승 4패로 밀렸다. 다저스의 마지막 월드시리즈 우승은 1988년이다.

후반기 맹활약으로 다저스의 역전 우승에 큰 힘을 보탠 류현진은 빅리그 진출 첫해인 2013년 애틀랜타와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서 포스트시즌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류현진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3이닝 6피안타 4실점

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챔피언십시리즈에 진출해서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3차전에 등판, 7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눈부신 피칭을 펼쳤다.

현재에서는 류현진이 6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디비전시리즈 2차전에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번 시즌 류현진은 홈에서 5승 2패 평균자책점 1.15의 '잔물 투구'를 펼쳤다.

이후 13일에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14일에는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가 시작한다. 월드시리즈(WS) 시작일은 24일이며, 7차전까지 갈 경우 다음달 1일 모든 일정이 끝난다. /연합뉴스

손흥민, 메시와 첫 맞대결

챔스리그 바르사전서 첫 골 도전

월드스타로 받들어주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이 살아있는 전설, 리오넬 메시와 첫 맞대결을 펼친다.

손흥민은 4일(한국시간) 오전 4시 영국 런던 웬블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홈 경기에 출전한다.

최근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이 메시 앞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릴지 기대를 모은다.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이후 가장 긴 시간 동안 첫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비시즌 기간 소화했던 국제대회 출전 여파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손흥민은 바르셀로나전에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이미 인터밀란(이탈리아)에 밀려 당해 코너에 몰렸다.

바르셀로나와 홈 경기를 포기할 수 없다. 토트넘의 최대 강점인 2선 공격라인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 손흥민의 역할이 막중하다. 2선 핵심 공격수인 텔리 알리는 햄스트링 부상 재발로 출전이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경기에선 손흥민과 메시가 공을 뺏고 빼앗기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손흥민이 메시와 경기를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2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회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 체육축전에 참가한 학생들이 뉴스포츠인 소다운을 체험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 체육축전 열려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광주시교육청은 2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제2회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 체육축전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학생들의 체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광주시 지역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 종목 중 육상, 보치아 등 7개 종목은 내년에 열리는 제13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광주시 대표선수 선발전을 겸했다.

또 장애학생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태킹, 추크볼, 셔플보드, 커링링, 슨런, 소다운, 플라잉디스크, 핸들러, 티볼, 볼리볼, 후크볼 등 11개 종목의 뉴스포츠 체험장을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 설치해 다양한 생활체육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명자 광주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스포츠는 장애인의 삶을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며 "이번 체육축전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